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0.02.123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발행인 : 강현규,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02 시론

건축사가 답사를 해야 하는 이유

03 종합

사랑에서 _ 작은 것의 반격
법령소식
건축사 만평

04-05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2020년 제54회 정기총회 개최
전북도 소방본부, 26,168개 동 화재안전특별조사 마무리
전주시, 국가관광거점도시 전주 대표 정원으로 조성

06-07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2020년 제33회 정기총회 개최
광주건축사회, 건축계 인사들과 건축설계공모 선진화를 위한 협의
광주 서구, 노후건축물 대상 무료 안전점검 실시

08-09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2020년도 제54회 정기총회 개최
전남도, 농촌주택개량사업 1천 467동 전국 최대
목포시,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10 2019년 전주시 건축상

주거 부문 대상 '힐스타운 난솔현'

11 종합뉴스

대한건축사협회, 오는 2월 27일 제54회 정기총회 개최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오는 3월 21일 열린다
국토부,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토록...

12 독자광장

한 편의 시 _ 신도시 바라보니
책 소개 _ 데미안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신간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개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건축사가 답사를 해야 하는 이유



정종민 논설위원

명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전남 순천)
myarc3500@hanmail.net

- 1997 개업 - 현재
국립 순천대 석사, 박사수로
창원 경남대학교,
순천 청암대학교 겸임교수,
출강
- 전국 사찰, 고택, 향교,
관아를 15여 년 간 300여
곳 답사함
- 국립 순천대 평생교육원에
서 한국학, 전통문화탐방
지도사 과목을 강의함
- 전남도 한옥자문위원,
순천시축제위원회 위원,
도시재생전문위원
- 논문 : 건축기획방법론에
대한 연구(2002, 순천대)
- 저서 :
『좋은한옥』
(2012, 전남도청 공저)
『다시읽는 순천인문학』
(2018, 늘보기책)

역사문화답사를 하려면, 카메라 돋보기 그리고 망원경 등이 필요하다. 카메라는 이해하지만, 돋보기와 망원경은 생소할 것이다. 돋보기는 비문(碑文)을 읽을 때 필요하고, 망원경은 주위 경관과 건물 지붕 등을 볼 때 필요하다. 차를 타고 건물 앞에 내려 한옥에 들어가 마당과 건물을 보는 것은 기본이다. 처마선을 감상하고 공포(楹包)나 민도리(납도리, 굴도리)집을 보면서 감탄한다. 그런 후에 사진 몇 장 찍고 나오는 것은 답사의 기본을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흐르는 개울을 따라 독길을 걸으며, 때로는 오솔길도 걸어본다. 멀리 있는 논과 밭을 보면서, 주위 산천도 바라본다. 이름 없는 들꽃도 봐야 하고 동네 닭이나 강아지에게도 눈을 맞추며, 마을 안길을 어슬렁어슬렁 걷는다. 이렇게 마을 전체를 보며 집에다가 가서 대문의 위치나 방위도 따져보고, 드디어 대문 안으로 들어선다.

사람이 사는 집에서는 사람의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주인의 성격과 취미도 드러난다. 오래된 나무와 창호지의 냄새, 바깥마당에 놓여 있는 농기구, 마당에 심어져 있는 화초들의 향기도 느낀다. 뒤뜰의 화계(花階)에서 나는 꽃향기를 맡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이다. 그런 감성으로 천천히 집을 돌아본다. 고택은 대개 당호가 있는데, 그 뜻도 음미해보자. 뒷동산에 올라 앞에 펼쳐지는 안산과 조산까지도 살펴보면, 좌청룡이 어떻게 우백호가 어떻게 드나드니 하며, 풍수지리적인 조건도 따져 본다. 특별히 산세가 좋아 마음에 들면, 사진에 담아 두는 것도 필수다. 시간이 넉넉하면 뒷동산에 올라 집을 바라보며 감상하면, 처음 보았던 마을 이미지와 중첩되어 보는 이의 감성을 자극한다. 아무리 한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 그 감성에 젖다 보면 땀이나 추위를 이긴다.

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삶의 태도인 가치관이 보인다. 그 가치관은 조선을 정성적으로 지배한 성리학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성리학이 주류를 이룬 것은 맞지만, 고대부터 삼국시대에 이어 고려시대를 거쳐 온 무속신앙과 불교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전통 신앙인 무속신앙도 한 공간 속에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택에는 분명 그들의 삶의 태도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노장사상이 집안에 얼굴을 드러낸다면, 풍수지리적인 술법은 당연히 반영됐다. 그러므로 전통 건축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다양한 가능성을, 다시 말하자면 경우의 수를 무시할 수 없다.

그중에서도 잡히는 것 하나는 많은 전통 건축의 형식 가운데에서도 완성된 형식과 완성되지 못한 형식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완성된 집은 그래도 살림집, 한옥이다. 거기에는 주인의 성리학적 철학이 스며있고, 법도가 깔려 있었다. 집에 깔려 있는 원림과 정원도 사상과 철학이 녹아있는 것을 느끼고 보았다.

필자는 동아시아 역사 공부와 유·불·도 사상, 철학을 40대 중반부터 15여 년 이상 공부하고 전통 건축을 300여 곳을 답사했다. 답사하는 동안 얻는 것이 아주 많았다. 그중에서도 성리학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음을 알았다. 그리고 성리학의 법도를 알게 모르게 배웠다. 불교사상도 당연히 동양사상의 큰 줄기이기에 불심도 보았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에 들어온 후 세력을 확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1,000여 년 전 중국에 불교사상이 만연한 것을 크게 우려한 이들이 많았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주자(주희, 1130~1200)였다. 결국 주자는 유·불·도를 통섭해서 『주자전서』로 정리해서, 동아시아를 성리학 사상으로 700여 년 지배했다. 주자 이야기를 한 것은 시대는 다르지만, 4차산업 시대에 우리 건축사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와 외부의 도전을 응전으로 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자의 생각을 표현했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그리고 스카이뷰이면, 어떤 곳이든 가보지 않아도 볼 수 있고, 어떤 지식도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지 않고 감동을 받을 수 없고, 종이책을 보지 않고서는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역사문화답사를 권하는 이유다.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4차산업을 분류해보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융복합'을 4차산업 시대의 화두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는 융복합이다. 이제는 한 가지 분야만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이다. 예를 든다면, 스티브 잡스(1955~2011)의 '아이폰'이다. 이 폰에 인문학적 요소가 가미되어 성공했다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의 대가로도 알려졌다. 공학적인 한계를 인문학으로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서양에서 경영학이 발전한 지가 불과 100여 년인데, 우리나라에선 50여 년 정도이다. 경영학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기초가 되는 것이 인문학이다. 그러므로 경영학의 바탕은 인문학이다.

미국 클린턴 정부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했던 로버트 라이시(1946~)가 『부유한 노예』라는 책을 썼다. 이 내용 중에 '기크(Geeks)와 슈링크(Shrinks)'라는 명사가 나온다. 기크는 창의력을 말하고, 슈링크는 인간관계를 말하는데, 4차산업 시대에는 이 분야만이 컴퓨터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직업군이라고 단언했다. 최근에 앞으로 없어질 직업과 새로 생길 직업도 파악했는데, 다행히 건축사는 없어질 직업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 설계를 창작물로 생각한 모양이다. 당연하다. 아이디어의 소산물로 분류해 남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건축설계에 공학과 인문학이 결합 되는, 문화를 접목해야 한다. 따라서 공학도인 우리들은 기존의 아류로 가만히 앉아 아이디어를 찾을 것이 아니라, 답사와 인문학인 문학, 역사, 철학으로 무장해야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설계기술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에 '건축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불을 보듯 명확해졌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만은 해야겠다. "우리들은 건축사로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에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인간성 회복과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MIDAS
ARCHIDESIGN

대한민국 캐드독립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대한민국 캐드 아키텍디자인.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MIDAS www.midasCAD.com 구매문의 1899 - 9260

사랑에서 _ 예수세 번째

작은 것의 반격

큰 것에 대한 욕망, 19세기 이후 역사 속의 많은 나라들은 보다 넓은 영역을 갖기 위해 약소국을 점령하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성을 내세워 약자에 대한 폭력은 개척이라는 미명 아래 식민지화되고 그 속에서 본질인 사람은 희생되고 자연은 훼손되었다. 인간은 큰 것에 대한 소유욕이 있다. 크다는 것은 작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기도 하다. 물리적, 경제적 에너지는 국가나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있어 다양성, 가능성, 지속성 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식해 왔다. 기업과 조직이 거대해질수록 궁극의 목표인 사람의 행복과, 자연과의 공존은 무시되고 소소한 희생은 그럴 수 있다고 인식하는 오류를 범해왔다.

자연 생태계에 대한 배려,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은 이동성 및 저장 방식과 관계한다. 고전적으로 음악은 레코드판에 기록하여 소비되어왔다. 독일 브라운사의 디터람스는 1959년 휴대용 턴테이블을 만들었고 이후 소니, 애플 등의 제품디자인과 경영철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보다 작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스마트기기의 생태계와 함께 생활패턴의 변화로 이어졌다. 일본 무인양품의 후카사와 나오토는 일상의 도구를 모티브로 절제 속에 화려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적게 만들려고 한다. 최소한의 디자인이 최소의 소유로 이어지는 비율의 철학을 제품 및 공간에 담아내고 사람의 기억을 존중하려 한다. 인간의 무한한 상상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자극적인 소비패턴은 수명이 짧은 제품을 반복 생산하게 하고 저효율 제품은 기억 속에서 빨리 잊히게 된다. 동일 에너지와 동일 자원으로 만든 제품의 사용 주기는 환경문제와 직결한다. 따라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그만큼 친환경적일 수밖에 없다. 건축도 같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간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닌 자연 생태계의 영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무분별한 개발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하고 식민지화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작은 것의 반격, 역사 속의 기록을 보면 1492년 유럽의 아메리카 접촉 이후 대규모 이주와 식민지 과정에서 면적이 적은 원주민들의 상당수가 유럽의 균에 의해 감염되어 사망하였다. 천연두는 두창바이러스로 기원전 발생해 1980년 역사에서 사라지기까지 오랜 기간 유행을 반복하며 높은 사망률을 보였고, 아즈텍 문명과 잉카제국 몰락에 영향을 미쳤다. 흑사병은 중세 유럽 인구의 절반가량을 감소시키고 당시 사회 기반을 이루던 봉건 제도가 영향을 미쳤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병으로 OECD 중 우리나라는 높은 발생 및 사망률을 보여 왔다. 스페인독감은 1918년 미국에서 시작해 2년 동안 1차 세계대전보다 많은 5,000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독감도 수십만의 사망자를 냈다. 2003년 사스도 세계에서 8천여 명이 감염돼 700여 명이 사망했으며, 메르스도 전 세계 25개국에서 500여 명이 사망하였다. 최근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작은 것의 반란이다.

인간이 아무리 생태계의 상위에 있다고 하나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불확실성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인 듯하다. 생태환경 파괴가 바이러스와 관계한다. 단언할 수 없지만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기후 변화와 생태환경의 파괴는 다시 인간을 향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평등하게 여기며 자연과 공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안전하고 지혜롭게 이겨 나가고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천이십년 이월 이일, 마루로 육십칠
자문위원_정명환 건축사(a2700@daum.net)

법/령/소/식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접수기간 : 2020. 1. 22.~2020. 3. 2.)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53호

1. 개정 이유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조사와 설치 안전 기준,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및 미끄럼 안내 표지 설치 등을 규정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6831호, 2019. 12. 24. 공포, 2020. 6.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안내문에 포함될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경사진 주차장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강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경사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또는 비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 나.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안 제6조) 40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사진 주차장 안전 지도점검(안 제4조·제6조·제1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범위에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대규모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등을 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作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강동영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전담기자 곽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편집위원 정관성,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설해순, 이원규, 정영진, 임현정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350,000원
(주)대광판넬 350,000원
마이디자인 3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i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비상

정용균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세운건축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산6길 14
 Tel. 063-225-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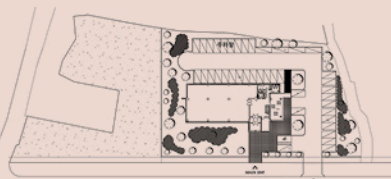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526 / 대지면적 : 4,769.00㎡ / 건축면적 : 583.11㎡ / 연면적 : 1,626.94㎡
 주용도 : 제1·2층 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상 4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스타코, 징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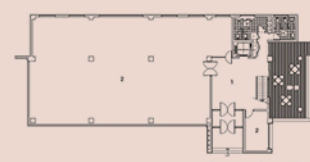


본 대지는 전주의 관문인 호남제일문으로 향하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남북으로 긴 형태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인지성을 높이고자 건축물의 정면이 도로에 길게 면하는 형태의 배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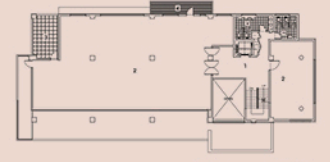
따라서 서쪽을 향하는 건축물이 됨에 따라 각층 처마를 돌출시켜 건축물의 볼륨감과 뜨거운 여름 햇빛을 차단하려고 노력하였고 각층마다 옥외휴게공간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휴식에 도움을 주었고 1층 남쪽에 필로티 및 부출입구를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출입구를 분리하여 동선을 간결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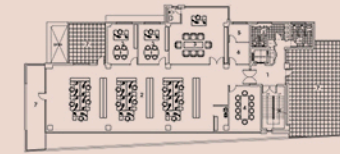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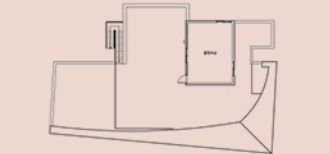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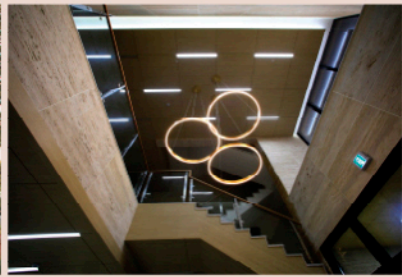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전북건축사회, 2020년 제54회 정기총회 개최

오는 3월 26일 오후 4시 전주 오펠리스 5층 컨벤션홀에서 진행



전북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오는 3월 26일 오후 4시 전주 오펠리스 5층 컨벤션홀에서 2020년도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도 회계 결산과 2020년도 예산승인,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를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념식에는 건축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상 및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주지역 건축사회도 오는 3월 31일 오전 10시 동 장소에서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도 소방본부, 26,168개 동 화재안전특별조사 마무리

전체 조사 대상 중 17,050개 동에서 6만1,41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26,168개 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1월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 차원의 '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대형화재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자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조사반은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 전문가와 조사 보조요원을 73개 반, 253명으로 편성하였고, 화재 위험성이 높고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종합조사(총 4개 분야 270개 항목)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17,050개 동(전체의 65%)에서 ▲소화기 미설치, ▲비상경보기 작동불량, ▲유도등 미점등 등 소방시설 불량, ▲피난계단 적치물, ▲불법층축, ▲누전차단기 미설치, ▲과용량 과전류차단기 사용, ▲LPG용기 옥내 보관 등 6만1,41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소방 3만3,403건(54.4%), △건축 13,061건(21.3%), △전기 11,287건(18.4%) △가스 3,664건(6%)이 지적되었다. 이 가운데 58,202건(94.8%)은 자발적 개선의 기회를 통해 개선을 하였고, 3,159건(5.1%)에 대해서는 기관통보(2,742건), 조치명령(417건)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전주시, 국가관광거점도시 전주 대표 정원으로 조성

지난 2월 5일 시민들 휴식 및 문화공간 조성 위한 '전주 지방정원 기반구상 용역' 착수

과거 쓰레기매립장이었던 호동골 일대를 전주의 대표 정원으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 전주시는 호동골 양묘장과 자연생태체험학습원, 아중호수 일대 약 30만㎡를 숲과 정원으로 채워 시민들의 휴식·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주 지방정원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했다고 지난 2월 5일 밝혔다.

(주)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진행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쓰레기매립장으로 버려진 공간을 활용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차별화된 테마정원으로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 힐링과 체험, 관광, 교육 등이 담긴 공간을 구상해서 전주를 대표하는 정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아중호수와 연결하는 에코 브릿지를 설치해 정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도로 개설로 인해 단절됐던 녹지의 경관을 복구하기 위해 섬세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정원 구상 용역은 오는 5월까지 진행되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북도에 지방정원 조성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동시에 지방정원과 에코 브릿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44억 원 등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정원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과 더불어 이달 중에 전문가와 유관기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전주 지방정원 다올마당'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통해 기본구상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주시·서울시, 선진 주거복지 노하우 공유

전주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지난 1월 16일 공동 워크숍 개최

전주시와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전주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1월 16일 SH 주거복지 기획부와 강동·도봉·동대문·서초·성·양천·용산·중구·종로구 주거복지센터 9개소, 전주시 주거복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복지센터 워크숍을 전주시청 주거복지과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주시와 서울시가 각각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의 주요성과와 상담, 이사비용·긴급주거비용·집수리지원·임대료지원 등 자원들을 연계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주거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워크숍에 이어 전주시가 노후 주거지 내 단독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팔복 해피하우스센터와 사회초년생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청춘101' 등 사회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신설했으며,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 및 공공건축가 구축·운영과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대책 마련,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문제 개선, 아파트 분양가 심사공개, 지역기반형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국비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추진, 단독·연립주택 관리소 해피하우스 운영확대 등 전주형 주거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는 또 전주시주거복지센터는 민·관 자원연계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추가 접수 중

오는 2월 18일까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창고 등 비주택 신규 지원

익산시는 지난달 환경부의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이달 18일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취약계층은 가구당 전액지원, 일반계층은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하고,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의 경우 모든 계층에 최대 172만원 한도 내 지원할 예정으로 한도 초과 시에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또한 지붕개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사업비 잔액 발생 시에는 일반계층도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5억4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188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13동의 지붕개량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친환경 도시의 조성 방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액하여 10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침 개정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접수에 한창이다.

신청 기한은 이달 18일까지이며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 회원동정

•입회

- 안호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이젠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산로 42
- 홍성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0
- 배상익 건축사 / 하이 건축사사무소 / 전북 군산시 조촌안1길 30
- 박현남 건축사 / 미소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51
- 박민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우주 / 전북 완주군 용진읍 가목길 45-29
- 김준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루 /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반로 17
- 노기완 건축사 / 새날 건축사사무소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용로 6
- 한희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희선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서로 34
- 한규덕 건축사 / 한담 건축사사무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적천로 319

•퇴회

- 김주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원

•변경(소재지)

- 이영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세원건축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솟대1길 27
- 윤종환 건축사 / 엘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삼천공덕길 31
- 이현숙 건축사 / 이노베이션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기지로 41

•결혼

- 박민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우주 / 본인 결혼 - 02월 09일(일)

•부고

- 박보경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시엔에스 / 빙모상 - 02월 04일(화)
- 김선희 건축사 / SM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2월 06일(목)
- 박복걸 건축사 / (유)도성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2월 06일(목)
- 김유천 건축사 / 아이아트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2월 07일(금)
- 박일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삼영 / 빙모상 - 02월 07일(금)



법무부 가온 직장어린이집

고재욱 건축사
아이디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무등로 255, 2층
Tel. 062-513-5887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831 외 3필지 / 건축면적 : 357.87㎡ / 연면적 : 342.79㎡ / 주용도 :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직장어린이집)
주요마감 : 알미늄징크강판, 알미늄타공판, 스타코마감

광주건축사회, 2020년 제33회 정기총회 개최

오는 3월 13일 오전 10시 서구 광천동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5층 그랜드볼룸에서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오는 3월 13일 광주 서구 광천동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5층 그랜드볼룸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는 1부 기념식과 2부 본식으로 나눠 열리는데 1부 기념식에는 개회사 및 축사,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식

등이 진행되며, 2부 본식에서는 신입회원 소개와 감사보고, 안건상정 및 의결 등의 식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제14차 정기총회와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제38차 정기총회도 함께 개최된다.

광주건축사회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감사를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건축계 인사들과 건축설계공모 선진화를 위한 협의

지난 2월 13일 광주건축사회 4층 소회의실에서... 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개선 등 논의



지난 2월 13일 광주건축사회 4층 소회의실에서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과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남승진 회장,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유우상 회장, 나무심는건축인 신정철 회장 등 광주지역 건축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건축설계공모 선진화를 위한 협의 회의

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광주건축사회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건축계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대두된 건축설계공모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사항이 논의됐다.

현행 건축 설계공모방식은 설계자의 참여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매번 논란이 되어 건축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있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설계공모 금액별 개선사항이 논의되었는데, 설계비 3억 이상 공모에는 심사위원 현장 조사 절차 강화와 심사위원 설계도서 사전검토 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거론됐고, 심사서류 간소화를 비롯하여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위원회 운영과정에서도 타지역 심사위원 비율 확대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모참가자들의 사전 접촉금지 원칙화 등이 논의됐다.

또 당선작 실시설계 시 최대한 설계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억 이상 설계공모 시 타지역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하는 경우 광주지역 건축사사무소와 협업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이번 협의 회의에서 나온 방안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각 단체들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번과 같은 건축계 발전을 위한 협의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광주 서구, 노후건축물 대상 무료 안전점검 실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접수... 노후화되고 붕괴 취약한 건축물 우선 선정

광주 서구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지난 2월 4일 밝혔다.

대상은 15년 이상 된 서구 관내 소규모 노후건축물로 2월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가까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안전총괄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건축물대장의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을 확인해 노후화되고 붕괴에 취약한 건축물을 우선 선정, 4월부터 소유주와 방문일정을 협의해 점검을 진행한다.

안전점검은 건축 분야를 기본으로 토목, 소방, 전기, 가스 중 신청서에 선택한 분야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실시한다.

안전점검 후에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5개 등급을 부여하고, 내·외부 균열 여부 등을 확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취약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불량, 미흡 등급으로 위험 정도가 심한 건축물은 소유주와 협의해 사용 제한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시 정밀점검 또는 안전진단 이행)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광주시, 슬레이트 처리에 최대 427만 원 지원

총 434동에 사업비 14억 4,400만 원 투입,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4억 4,400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반영, 사업비를 지난해 보다 82%가량 늘렸다.

지원 대상은 주택 슬레이트에서 비주택 슬레이트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동당 주택 철거는 최대 344만 원, 지붕 개량은 최대 427만 원으로 늘리고, 비주택 철거는 최대 172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그동안 비용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개인이 부담했지만, 올해부터 우선 순위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에 한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변경 사항을 반영해 올해 주택철거 331동, 지붕개량 50동, 비주택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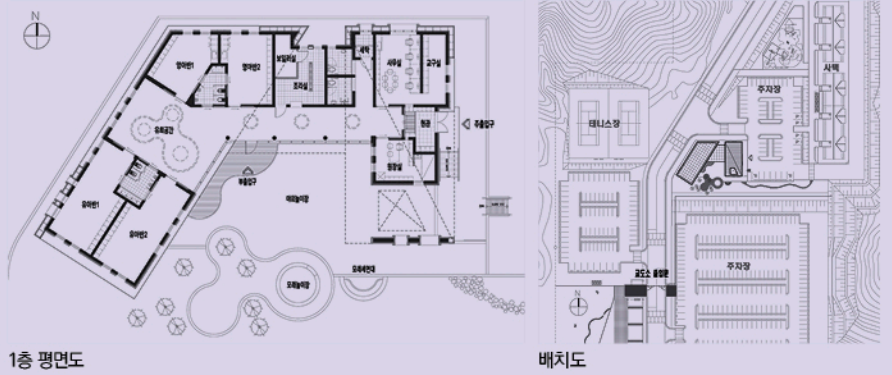


광주교도소 부지 내 직원 사택 앞 소나무가 높게 드리워진 공터에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고하고자 직원들을 위한 1층 규모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계획안이다.

계획 대지 중앙부에 식재되어있는 소나무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배치계획을 하였고 야외놀이 공간은 외부 환경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ㄷ자 형태의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기존 소나무를 이용한 야외놀이가 가능할 것이고 야외에서 놀이 후 야외 세면을 할 수 있는 세면대를 계획하였다.

교도소라는 특수성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무게감이 있는 징크판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건축물 전체 분위기는 안정적이고 무게감은 있지만 산만하지 않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형태와 색상을 사용하였다.

공간과 공간 연결부분은 시간에 따른 다양한 빛이 유입되는 형태로 계획하였다.



53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내진성능평가비용(최대 3,000만 원)과 인증수수료(최대 500만 원) 최대 90% 지원

광주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적극 추진한다고 지난 1월 30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내진보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 대상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또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최대 3,000만 원)과 인증수수료(최대 500만 원)를 최대 90% 지원한다.

더불어 내진 보강 공사 시 세제감면 및 보험료 할인,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표시 등의 혜택을 부여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건축사회 2020년도 감사 선거 공고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사회 2020년도 감사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선거구분 : 2020년도 감사 선거
2. 등록자격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정회원
단) 회칙 제9조의 회원의 권리에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 및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임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조합원
3. 등록기간 : 2020년 2월 11일(화) ~ 2020년 2월 17일(월)
[평일 09:00~18:00, 토요일 제외]
4. 등록방법 : 아래 등록서류를 본 사회 사무국으로 제출
5. 등록서류
가.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사회 소정의 양식) 1부
나. 입후보자 소견서
다. 이력서
라. 후보자 추천서(사회 소정의 양식)
[감사 : 선거인 20인 이상 추천]
단) 각 선거 내 후보자 추천서에 선거인 중복추천은 포함하지 않음
마. 선거공보 원고 7부 및 PDF 파일
[A4 규격 1매에 최근 3개월 이내의 사진, 성명, 생년, 학력, 경력, 소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바. 선거기탁금
- 감사선거 : 100만 원(예비후보 등록 시 50% 납부한 후보는 50만 원)
- 납부계좌번호 : 신한 131-013-307505 / 광주건축사회
6. 문의사항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사무국
Tel. 062) 521-0025~6

2020. 2. 11.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Design by freepik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신입회원 모집

명실상부 건축사 최고의 축구팀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건축사님 누구나 참석 가능

운동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 상무시민구장

가입 · 회장 양동윤 건축사 감독 김도석 건축사
문의 · 총무 최승민 건축사 010-5625-9874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김홍용 건축사 / 더엘림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 15, 409호
- 결혼
- 박영경 건축사 / (주)간토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02월 22일(토) 오후 1시
- 부고
- 강필서 건축사 /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1월 30일(목)

전남건축사회 2020년도 제54회 정기총회 개최

오는 3월 13일 오후 1시 화순 금호리조트 남도홀에서... 앞서 윤리교육 진행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오는 3월 13일 오후 1시 화순 금호리조트 2층 남도홀에서 2020년도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의식행사와 정기총회 본식으로 나눠 열리며 의식행사에서 성원보고와 국민의례, 건축사헌장 낭독, 개회사 및 내외빈 축사, 감사패 수여, 신입회원 소개가 진행된다.

특히 감사패 수여식에서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김태식 지방기술서기관과 장흥군청 민원처리과 양희광 건축팀장, 무안군청 건축과 류승표 주무관,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한명우 주무관,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고영백 주무관, 광양시청 허가과 장세준 주무관 등 도내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직 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정기총회 본식에서 사업보고와 감사보고,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한편, 이에 앞서 오전 11시에 유명 작가이자 前 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 초빙교수인 한승원 씨를 초빙하여 '현대인의 윤리 의식과 문학적인 감수성'이란 주제로 건축사 실무교육 윤리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 농촌주택개량사업 1천 467동 전국 최다

전국 사업량 18%... 농촌 노후주택 개량·신축 융자지원

전라남도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전국 최다 규모인 1,467동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지난 1월 28일 밝혔다. 이는 전국 물량 7,937동의 18.48%를 차지한 규모로,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철저한 추진 상황 관리, 농촌주거환경개선 의지를 평가받아 물량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협에서 주택개량·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융자지원은 농협에서 주택건축비 범위에서 대출 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연면적 150㎡ 이내 신축·개축·재축 등은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빈집 자진 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자 순으로 선정된다. 개량 또는 철거하는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과 연계돼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다. 취득세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초기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선금(중도금)을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세대주에 한정되던 사업신청자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군 농촌주택개량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목포시,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금액 확대 및 비주택 슬레이트 신규 지원

목포시는 시민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48동과 취약계층 지붕개량 10동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8동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로 1동당 최대 344만 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17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사업 희망자는 2월 14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로 신청하고, 희망자가 많을 경우 타 부처 연계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 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 후보를 선정해두고 진행해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흉막비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조속한 철거를 통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목포시 자원순환과(061-270-8574)로 하면 된다.

여수시, 동절기 시공 중인 대형 공사장 '집중 점검' 나서

2월 말까지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형 공사장 21개소 집중점검



여수시는 지난 1월 28일부터 오는 2월 말까지 동절기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 및 시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형 공사장으로 죽림현대 지역주택조합 등 공동주택 8개소와 디 아일랜드 숙박시설 등 13개소를 합

쳐 총 21개소이다.

시는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 및 공동주택팀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절기에 취약한 절개지 등에 대한 지반침하, 혹한기 콘크리트 타설 적정 여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구조물에 대한 보강 및 보호 조치 여부 등

빛가람동735-3

노기승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WITH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4, 203호 / Tel. 061-332-1645

대지위치: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735-3번지 / 대지면적: 288.20㎡ / 건축면적: 143.95㎡ / 연면적: 248.03㎡ / 건폐율: 49.948%
용적률: 86.062% / 주용도: 단독주택 / 규모: 지상 2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한 부분은 시공 벌점 부여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지난 1월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대형 공사 현장 21개소 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사업 시행 관계자에게 동절기 중점 점검 사항을 설명하고 시공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하도급업체를 참여시켜 줄 것과 여수지역 생산품 우선 사용, 현장 근무 인력에 대한 우리시 전입에 대하여 적극 당부하였다.

전남소방, 소방시설 안전관리 '콜센터' 운영

점검장비 무상 대여 및 사용법 교육 등 관계인 자체 점검 활성화

전남소방본부는 도민 편의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시설 안전관리 콜센터'를 운영한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관계인들은 작동기능점검을 육안점검에 의존해 실제 소방시설 점검장비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구입을 기피해 왔다. 이번 콜센터 운영은 이를 막기 위해 자체 점검 장비를 무상 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콜센터는 도내 16개 소방서, 55개 안전센터에서 운영하며, 소방서별 대표전화로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해당 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용법 교육을 받은 뒤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대여 장비는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연기감지기시험기, 소화전밸브압력계 5종이다.

이 밖에 콜센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오작동,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방법 등에 대한 상담과 감지기, 유도등 표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간단한 소모품 교체도 실시한다.

전남소방은 지난해 총 611회 점검장비 대여와 979점의 소모품 교체를 실시했다.

광양시,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골목 활성화 전시회 개최

지난 2월 3일부터 11일간 시청 로비에서... 골목 활성화 공모전 결과물 전시



광양시는 지난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11일간 시청 1층 로비에서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골목 활성화 공모전 결과물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광양읍 인서리와 읍내리 일원에서 광양읍 골목에 대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워크숍은 '초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전문가와 대학생이 총 13개의 팀을 이뤄 진행

됐으며, 각자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상안을 실물로 구현하고 제작하는 등 결과물을 도출하면서 그 차별성이 돋보였다.

또한 프로그램 내 주민과 함께하는 경관협정, 작은 행사, 공연 등을 함께 진행해 지역 주민들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러한 과정을 잘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는 물론 활동의 기록들을 사진과 영상, 주민들의 참여기록, 실물의 샘플 등과 함께 배치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에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 동안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사업과 함께 한옥, 창고, 골목 등에 대한 설계를 진행했으며, 읍내리 일대 한옥게스트하우스, 한옥 북카페 조성 등을 위한 한옥가꾸기 사업을 착공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활기를 띠 예정이다.

전남도, 건축 등 시설직렬 경력경쟁 임용시험 재실시

2개 직류 총 50여 명 선발... 2월 21일 도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 가능

전남도는 시·군 시설직 공무원의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 토목·건축 직류에 대한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재실시한다고 지난 2월 10일 밝혔다.

도는 공개 경쟁 임용시험에서 미충원된 시설직(건축·토목)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1월 시설직(토목·건축)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했으나, 필기시험에서 과락자가 다수 발생해 선발 예정 인원에 크게 밀도는 합격자가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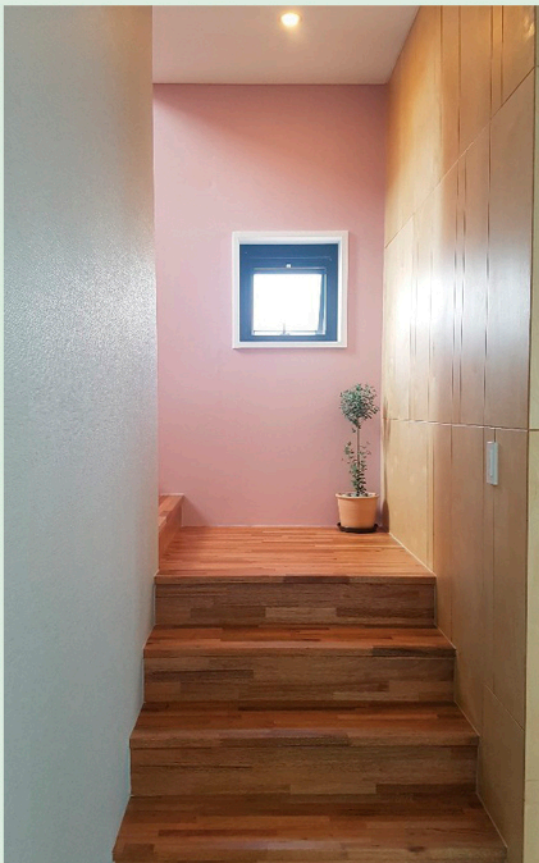
이에 따라 결원으로 인한 일선 행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미충원된 인원 선발을 위한 재시험을 추진한다. 이번 시험은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3월에 실시되며, 선발 규모는 건축·토목 2개 직류 총 5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시험과목은 각 직류별 3과목으로 △건축은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일반토목은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과목이 실시된다.

한편 원서접수 등 구체적인 시험 일정과 정보는 오는 2월 21일 도 홈페이지(시험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김상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오피에스 / 전남 목포시 삼향천로 20
 - 강영록 건축사 / 강영록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58, 2층 1호
- **변경**
 - 이완희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공간 / 전남 순천시 장산배기길 33, 6층
 - 정 훈 건축사 / 신화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375번길 33-2
- **전입**
 - 김덕중 건축사 / 티엠지 건축사사무소(주)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대죽동로 39, 5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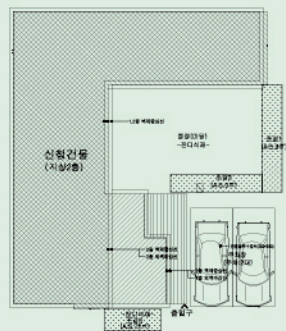


본 대지는 남쪽 전면도로와 동쪽 어린이공원이 접하여 있다. 공원과 도로에 접한 가로마당을 고려하면서 주택의 진입과 프라이버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계획을 시작하였다.

동쪽으로 열린 ㄷ자 배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공원의 풍경을 집안 가득 담을 수 있도록 거실과 주방의 공간을 분리하였다.

2층은 가족실을 중심으로 방들을 배치하여 환기와 채광은 물론 각각의 공간에서 원경과 근경을 다양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창호 디자인과 입면의 형태를 고려하였다.

새로운 보금자리인 이곳에서 가족 모두가 꿈을 갖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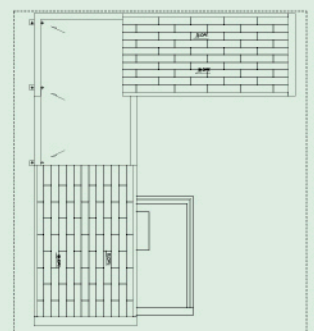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2019년 전주시 건축상 주거 부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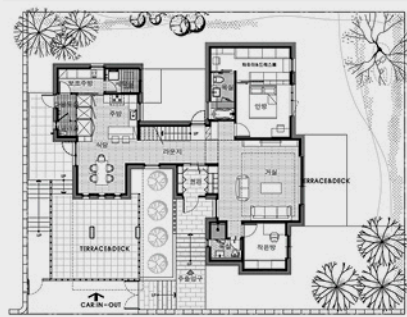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중화산동2가 833-6 / 주용도 : 단독주택 / 대지면적 : 499.50㎡ / 건축면적 : 175.81㎡ / 연면적 : 199.5325㎡ / 건폐율 : 35.1972% / 용적률 : 31.1216%
 규모 : 지하 1층~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주요마감 : 홍고벽돌, 리얼징크, 이형블럭

힐스타운 난솔헌

설계자 : 유성환 건축사 (예손 건축사사무소)

중화산동(힐스타운) 도심형 주거 전용 택지로서 서산을 배경으로 신시가지 스카이라인과 모악산이 보이는 조망이 시원스레 펼쳐진 부지에 건축되었다.
 오랜 세월 교직에 몸담은 부부 교사의 화목한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독서와 사색을 할 수 있는 곳과 가족이 함께 하는 곳을 구분하여 실별 독립성을 높이는 데 설계의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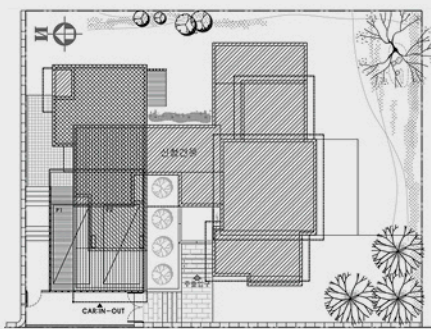
지상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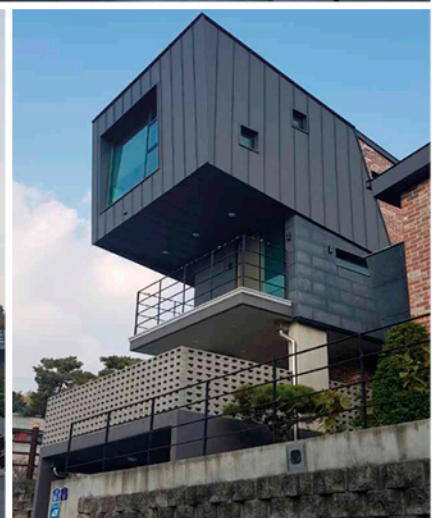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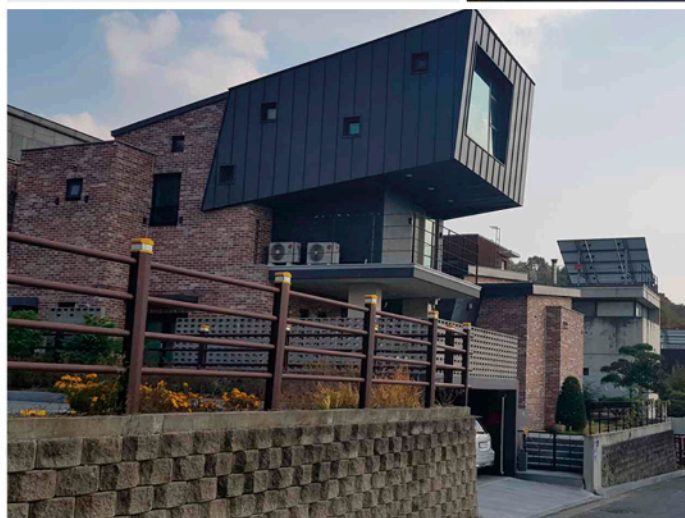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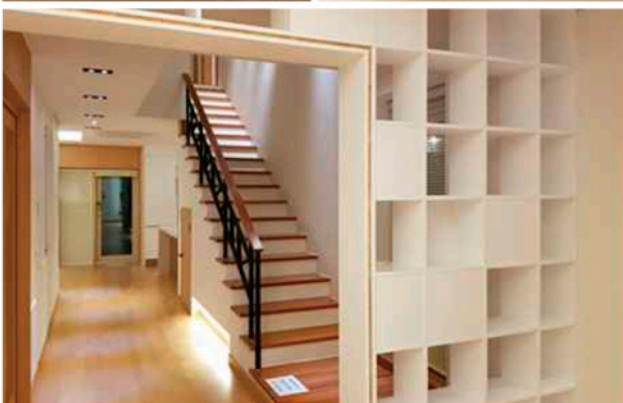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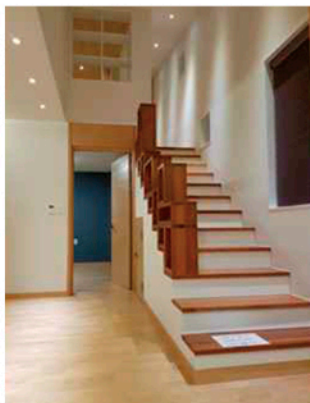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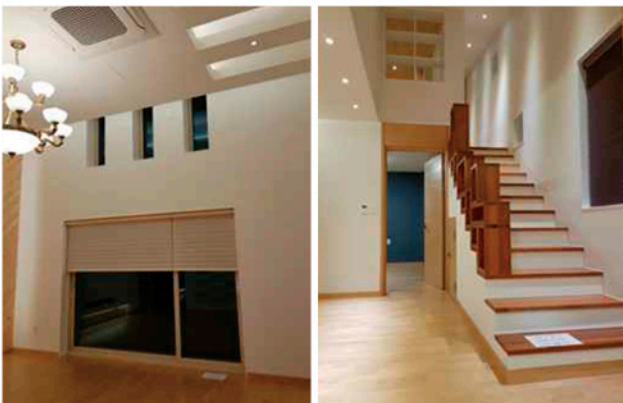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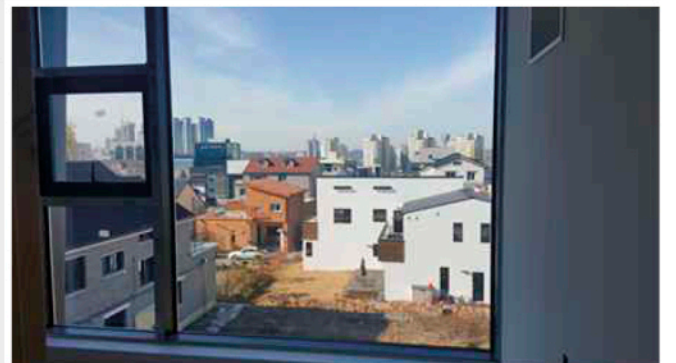
지상 2층 평면도



다락층 평면도



배치도



대한건축사협회, 오는 2월 27일 제54회 정기총회 개최

오전 10시 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감사 후보에 충북 이재삼 건축사 등록



이재삼 건축사
(주)강산 건축사사무소
충북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가 오는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2020년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도 회계별 결산(안)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원 선출의 건에서 감사 후보에 충청북도건축사회 (주)강산 건축사사무소 이재삼 건축사가 단독으로 출마했으며, 큰 변수가 없는 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기총회 본식에 앞서 명예 회원 위촉 및 외부공로자, 공로회원, 직원에 대한 표창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오는 3월 21일 열린다

올해부터 2번 3월과 9월에 진행... 제1회 시험 작년과 비슷한 인원 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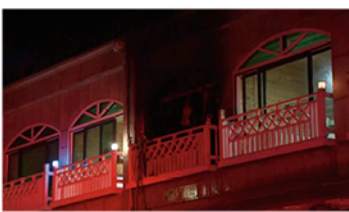
정부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돕고 건축업계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험을 연 2회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2020년 3월과 9월에 2020년 건축사자격시험이 개최된다.

첫 번째 시험은 오는 3월 21일 열리는데 '2020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에 총 7,936명이 응시한 작년과 비슷한 인원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라 4년제 건축학과 졸업생 등은 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해야만 건축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작년 11월 예비시험이 폐지된 탓에 예비시험합격자들은 2026년까지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장소공고는 오는 2월 26일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kira.or.kr/>)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예정자 발표는 5월 15일 진행된다.

국토부,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토록...

'동해 펜션 사고 재발 방지'... 지자체에 인상(최대 100% 가중) 권고...



지난 2월 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강릉 동해시 펜션에서 있었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동해시에서는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펜션에서 가스가 폭발해 일가족 6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이행강제금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4억

원인 펜션을 불법 용도 변경할 경우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인 4,000만원이다. 국토부 권고대로 지자체가 가중치를 100% 적용하면 이행강제금은 두 배인 8,000만 원이 되고, 1년에 2번 부과하면 총 1억6,000만 원을 내야 한다.

현재 건축법령으로 이행강제금의 상한(최대 100% 가중)과 연 부과 횟수(최대 2회)가 정해져 있었으나 지자체는 조례 등으로 이를 자체적으로 조절해 왔다. 국토부는 일부 지자체가 민원을 우려해 부과금을 감액해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업주 입장에서는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낮다 보니 이를 '영업비용' 정도로 생각해 불법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연면적 3,000㎡를 넘는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종합점검을 받는다

'건축물 관리법' 5월부터 시행... 대한건축사협회, 관련 교육 2월 17일 개설

앞으로 연면적 3,000㎡를 넘는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종합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 2월 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은 연면적 3,000㎡ 이상이 되는 집합 건축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점검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 건축 분야 기술사 등이 진행하게 된다. 또 태풍 등 재해에 취약했지만,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침탑·옹벽도 정기 점검 대상으로 편입됐다.

일부 건축물은 화재안전 성능보강도 완료해야 한다. 병원·청소년 수련원 등 3층 이상의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약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화재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 설비교체 등에 대한 1%대 저리 융자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정기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책임자 교육을 개설했다. 2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이버교육(21시간)과 집합교육(14시간)을 진행하며, 사이버 교육의 경우 건축사교육원 사이버교육원(울원에듀 KIRA-EDU)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했고, 집합교육의 경우 지방 권역별로 3월과 4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건축사가 수강하는 경우 사이버교육 중 건축 관련 법규(7시간) 과목은 면제 되도록 조치했으며, 건축사 실무교육 자기계발 5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대표건축사 1인 이외에 2명 이상의 건축사(건설기술인 포함) 인력 이상을 소유한 점검기관만이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및 시행될 예정이나, 대한건축사협회는 현행 1인 이상인 점검업무 인력기준으로도 충분히 건축물 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본석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2, 2층
T . 062-228-0787~8
F . 062-228-0789
M. 010-2736-0787
E . lbs0787@daum.net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법무관 15기 임용
- (현)광주건축사회 법률 자문변호사
- (현)광주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현)전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현)부동산개발협회 광주지회 자문변호사
- (전)영무토건 자문변호사
- (전)광주광역시청 법률지원 자문위원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실무과정」 제1차 교육생 모집공고

• 교육훈련일정 및 지원자격

교육일자 및 교육시간	교육비	모집인원	지원자격
2020년 3월 5일(목) ~ 3월 7일(토) (3일 과정/총 24시간)	전액 무료	40명 (선착순)	건축 관련 분야의 재직근로자로서 고용보험료 납부자 ※ 대표자(CEO)는 교육대상이 아님

• **교육과정 개요**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처리절차, 설계기준, 작성방법 등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 제출서류(증빙서류 미첨부 시, 접수 불가)

1.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실무과정」 지원신청서, 교육생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1-1.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접수 15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2. 전락분야 인력양성 사업 협약서 및 협약기업 일반현황 각 2부
※ 협약을 체결한 기업(건축사사무소 등) 재직근로자는 생략(협약기업 체결 유무는 첨부파일 참고)

• **서류접수기간** : 2020년 2월 10일(월) ~ 2020년 2월 21일(금) ※ 선착순 모집

• **교육대상자 발표** : 2020년 2월 25일(화)

• **교육기간** : 2020년 3월 5일(목) ~ 2020년 3월 7일(토)

• **문의처** : 대한건축사협회 교육팀 Tel. 02-3415-6857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안내

• 건설기술인 최초교육의 종류 및 이수대상

건설기술인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으로 구분되며, 수행하는 업무(건설관련 업체·발주청에 소속되어 수행한 경우에 한함)에 따라 다음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 ①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설계·시공 최초교육(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 ②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품질관리 최초교육(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 ③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기본교육 70시간, 전문교육 35·70시간)
※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 또는 품질관리 최초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설계·시공 최초교육 면제

•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방법

건설기술인 최초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 협회업무 > 건설기술인관리 > 교육훈련)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에서 확인

• 문의처

대한건축사협회 경력시킴팀 Tel. 02-3415-6842~6 Fax. 02-3415-6855 / 사·도건축사협회

한 편의 시 _ 제당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신도시 바라보니

천지개벽이 따로 없다
발과 눈만 있었던 자리
잡풀만 무성했던 자리
그 거친 황무지가
삶의 신도시로 변했다
예전에 그 자리에
배추 심고 무우 심고
누런 나락사이로
메뚜기 뛰놀던 곳

미나리와 삭부쟁이 뜯어
바구니에 담았던 그곳에
육중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죽순처럼 채워졌다
개구리 울고
고라니 뛰어놀던 그곳이 아스팔트와 주차장으로 변하여
옛 흔적들은 사라지고
오래된 상념들만 나무꾼다
드문드문 옛 집터들은
숨소리만 들리는 듯 하고
헛간의 소 울음소리
공중에서 맴도는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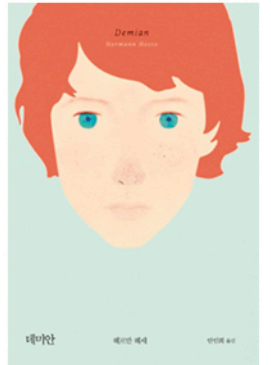


책 소개 _ 김소희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데미안

헤르만 헤세 저 / 안인희 역 / 문학동네 / 2020. 01. 08

화자는 중년의 싱클레어로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써 내려가며 작가 본인 헤르만 헤세의 삶과 닮아있다. 헤르만 헤세는 세계대전을 겪고 그 안에서 내면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2차적인 자아의 변화를 소설로 집필한 것이다.



시작은 두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유년의 싱클레어가 모든 것이 편안한 온전한 세계와 어두운 세계가 공존한다고 믿으며 그 안에서 자신의 자아가 어디에 속하는지 온전한 세계에 속하고 싶은 갈망과 동시에 어두운 세계로 빠져드는 이야기를 하고 유년 시절 프란츠 크로머를 만나 온전히 자기 자신만의 문제를 갖게 된다.

이때 데미안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데미안이 하는 이야기들로 싱클레어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고 자아와 내면의 끝없는 질문을 하면서 성장해가고 데미안을 만나지 않아도 항상 마음 속에 생각하며 삶에 대한 고민과 알에서 깨어나오는 새의 꿈, 순간마다 끌어올려 고민에 집중하는 이야기이다.

전체적인 흐름보다 화자가 느끼는 감정과 순간순간의 고민과 내면의 질문들에 집중해서 읽게 되었는데 작가의 표현들이 인상 깊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이면 그에 따른 당연한 감정들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반대의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모순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역설적인 단어들로 전부 공감되어 느껴진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성인 베아트리체를 직접 그려보니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데미안의 모습과 결국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 보게 되며 나의 신이라고도 표현하며 결국 그 그림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최근 나에 대한 고민과 감정들에 집중할 에너지가 없었다. 솔직하게 그런 노력하기엔 너무 게을러져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싱클레어가 자신에게 집중하는 표현들을 공감하며 읽기만 해도 어느샌가 나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 여운이 남는 책이었다.

항상 나에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역설적인 생각이나 감정,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들이 나만의 이야기라고 간과했다. 어쩌면 데미안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됐다. 싱클레어가 데미안이 자신이 된 것처럼 말이다.

질병관리본부
KCDC

해위감염병 NOW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감염병 예방 수칙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현황: 강원도(강릉, 속초, 동해, 양양, 평창) 5곳, 서울(강남, 서대문, 은평, 중구) 4곳, 인천(남동, 남구) 2곳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동물 접촉 금지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 기침시 마스크 착용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 [해위감염병 NOW](#) 에서!

발행일 : 2020.1.29

문의 | 1855-2240

www.dkboard.kr

난연액 도포

■ BASF 네오폴(Neopor)에 특수 난연 코팅

화재 **NO** · 단열 **YES**

준불연가등급

DK 보드 EPS 단열재

외단열용(2' X 4')
건축용(3' X 6')
판넬용(나등급)

DK보드는 독일 BASF 네오폴(비드법2종)에 특수 난연코팅과 난연액도포를 통해 탄생한 준불연 가등급 단열재입니다.

- 준불연재료 공인시험기관 인증
- 열전도율 : 0.034 W/m·k 이하
- 친환경 수성

주대 광 판 널
주디케이보드